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

이 영 숙 · 박 경 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발달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신체적 성장이 왕성하고 성적 발달이 가장 두드러져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극도로 고조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을 억압하는 것을 당연한 사회적 규범으로 유지하여온 우리 사회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형성 해놓지 못하였다.

최근 빈번한 발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폭력은 성 관련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최근의 보고(보건복지부, 2002)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의 성폭력 피해상담 중 청소년의 성폭력이 전체의 26.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개선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성폭력의 위협에 직면하고있는 청소년의 성태도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문제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성교육의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태도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청소년을 성적 일탈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실용적인 자료를 제시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2002년 7월 8일-16일에 k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694명에게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태도는 유형별로 행동지향형 집단, 개방적활동형 집단, 보수지향형 집단 등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행동지향형에 속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보수지향형에 속한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성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폭력이 일어날 장소와 시간은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나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남성으로 어떤 사람이나 가능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반면, 피해자는 여성으로 안면이 있는 주위사람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 피해자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성폭력의 책임자로는 가해자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성폭력을 당하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몇몇이 살아간다는 적극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 경우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응답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것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도움을 청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청소년이 극히 낮은 것은 청소년들에게 비친 현재의 교사의 위상을 보게 해준다. 따라서 교사를 위한 성교육 연수 기회를 늘려 청소년과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고와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